

올 여름휴가 특별한 영화 한 편 어때요

광주독립영화관, ‘네트워크 영화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심찬양 감독 ‘다시 만난 날들’ 임권택 감독 ‘짜코’ 등 상영
영화 상영 후 관객과 대화, 평론가 진행 시네마 클래스도 열려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여름 휴가’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여행이 제한된 상황,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2018년 개관해 지금까지 ‘어서와 독립영화는 처음이지?’, ‘독립영화 극장전’, ‘그럼에도 독립영화’ 등 다양한 기획전으로 관객과 만났던 광주독립영화관(대표 김지연)이 이번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네트워크 영화기획전’, ‘한국영화클래식’, ‘시네마클래스’ 등은 독립·고전 작품을 좀더 깊이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먼저, 광주독립영화관과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대표 정현기)가 공동으로 마련한 ‘네트워크 영화기획전’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현재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심찬양 감독과 김경묵 감독의 작품을 연달아 상영하고 감독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진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광주시 남구 양림동)는 2014년 문을 연 이래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하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여자’ (2019)의 김희정



정재형 교수

감독, ‘내 청춘에게 고함’ (2006)의 김영남 감독, ‘똥파리’ (2008)의 양익준 감독 등이 이곳을 찾아 차기 작품을 구상하고 타 장르 예술가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날 오후 2시에는 심 감독의 잔잔한

감성이 돋보이는 음악영화 ‘다시 만난 날들’ (2019)을 상영한다. 이어지는 작품은 김 감독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2013)로 오후 4시 만날 수 있다. 영화는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에피소드와 다양한 인간 군상을 유쾌하고도 울림있게 담아냈다.

28일과 31일에는 한국영화사의 걸작들을 소개하는 ‘한국영화클래식’이 열린다. 지난 5월 김기영 감독의 ‘하녀’에 이어 두번째로 선보이는 작품은 임권택 감독의 ‘짜코’ (1980)다.

‘짜코’는 임 감독의 72번째 연출작으로, 소설가 김중희의 작품을 영화화한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빨치산 짜코(김희라)와 전투경찰(최윤석)로 만난 두 인물의 30년에 걸친 악연을 추적하면서 어두운 근

현대사를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착했다.

임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 시대 감각과 비판 정신이 가장 치열했던 시절을 대표하는 분단영화이자 리얼리즘 영화로 평가받는 작품이며, 28일 영화 상영 후 강성을 평론가가 진행하는 시네마 클래스도 열린다.

광주극장과 연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시네마 클래스-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모든 것’은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독립영화관, 광주극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광주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시네마클래스는 현재 광주극장에서 진행중인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회고전’에 맞춰 키아로스타미의 영화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30일에는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 정신과 작품세계’를 다룬다. 31일에는 ‘코케르 3부작’으로 불리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987),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1992), ‘올리브 나무 사이로’ (1994) 세 편의 작품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다.

강의에는 영화평론가이자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재형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영화 전문가의 시선으로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한층 더 깊은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시네마클래스 참가 신청은 이름, 연락처, 간단한 신청 동기를 적어 광주독립영화관 메일(gjcinema@daum.net)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병란 시인 작품세계 다각도 조명

전남대 현대시연구회

‘문병란의 시와 세계’ 펴내

문병란 시인(1935~2015)은 생전에 서석동(瑞石洞)에 은거한다는 뜻으로 서은(瑞隱)이라는 호를 썼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했던 시인 문병란은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인 가운데 한 명이다.

서은(瑞隱) 문병란 시인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전남대 현대시연구회(연구회)는 최근 ‘문병란의 시와 세계 (문학들)’를 펴냈다. 특히 이번 연구서는 현대시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이 모여 다층적으로 시맥과 의미망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동근 전남대 국문과 교수를 비롯해 모두 8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제1부에는 문병란 시인의 생애에서 발견되는 경험적 인식과 시대적 실천의 연관 관계를 통찰하는 내용, 시가 지니는 의미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문병란의 초기 시세계 연구’ (이동순 조선대 부교수), ‘문병란 시세계에서 제1시집 ‘문병란시집’의 위상 재고(再考)’ (김미미 전남대



강사), ‘문병란 시의 정서 유형과 시어 선택원리’ (최혜경 전남대 HK연구교수), “5월의 연가’에 나타난 오월시의 대중성’ (김민지 전남대 박사수료)은 시대정신의 맥락을 ‘다시-잊기’ 하려는 시도와 연계된

다.

아울러 문병란의 생애와 시를 새롭게 의미화되는 양상들로 조명하는 ‘문병란의 오월시와 문학적 증언’ (정민구 전남대BK21 FOUR학술연구교수), ‘문병란 제2시집 ‘정당성’의 위상에 관한 단상(斷想)’ (김정우 부경대 조교수)을 비롯해 연대와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문병란 시의 고향 모티프’ (정병필 전남대 박사수료), ‘갑술년 개띠 시인이 카랑카랑 늙어가는 법’ (정다운 전남대 박사수료) 등을 만날 수 있다.

제2부는 1부의 글에서 분석한 시 텍스트들의 전문을, 제3부는 저자들이 시인의 시와 세계를 탐문하는 데 이해의 바탕으로 삼았던 시론들을 아울러 제시했다. 이밖에 책에는 문병란 시인의 생애 연보와 수상 경력, 발간 자료 목록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편제 대가 박동실 명창 조명 콜로키움

광주문화재단 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담양 가사문학관 앞에는 복도양을 형상화한 ‘명창 박동실 기념비’가 있다. 담양이 낳은 당대 최고 명창으로 칭송받는 고(故) 박동실 씨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다. 박 명창은 서편제의 대가로 유명하지만 월북 소리꾼, 북한 인민배우라는 이력 탓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서편제 대가 박동실 명창을 조명하는 콜로키움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박동실 명창을 조명하는 제3회 광주콜로키움을 오는 26일 오후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연다.

이번 콜로키움은 ‘광주 판소리의 전통과 명창 박동실’ 주제로 신은주 전북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최해진 목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동실 명창은 1897년 담양에서 태어나 서편제



신은주 교수

의 명창으로 전국에 명성을 떨쳤다. 지역의 창극운동을 이끌고 광주성악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어린나일부터 ‘춘향가’의 춘향 역을 도맡아 인기를 끌었던 박 명창은 1950년 월북해 창극 ‘춘향전’과 ‘이순신장군’을 창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50대 월북해 활동을 이어간 이력 탓에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발제를 맡은 신은주는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한국민요학회 부회장,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콜로키움 관람은 선착순 30명만 전화로 사전접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시청은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짜코’



영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광주문화재단, 정수연·펠리체 초청 음악 공연나눔

광주문화재단이 청년 예술인·단체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마련된 ‘빛고을시민문화관 함께하는 공연나눔’ 공연이 이번주도 진행된다.

23일(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은 청년 기획자 정수연의 ‘시네마 Paradiso-한 여름밤의 꿈’이, 24일(오후 6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은 뮤지션 그룹 펠리체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일 년’이 펼쳐진다.

먼저 ‘시네마 Paradiso-한 여름밤의 꿈’은 광주성악가협회 및 신인 솔리스트 앙상블 등 청년단체

가 참여해 ‘시네마 콘서트’라는 주제로 영화·뮤지컬ost를 성악으로 선보인다. 해설과 함께 영상도 상영된다. 영화 ‘위대한 쇼맨’ 중 ‘Never enough’,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you’ 등을 공연한다.

광주성악가협회 및 신인 솔리스트 앙상블 등 청년단체가 참여하며, 전문 해설에는 유형민 한국창의예술고 뮤지컬 지도교수가 맡는다. 소프라노 이경은 교수, 테너 윤병길 교수 등이 함께한다.

기획자 정수연 씨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 조선대 공연예술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장르 경계를 넘는 공연기획에 힘쓰고 있다.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일 년’ 공연은 월마다 어울리는 노래 12곡을 선정해 밴드·금관·현악·목관 등 다양한 악기로 선보인다. 7월은 가수 사이의 ‘낙원’이다. 그룹 ‘펠리체’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 모임으로 4개 팀은 밴드 ‘한’, 금관5중주 ‘나비드’, 현악4중주 ‘포엠’, 목관5중주 ‘앙코르’ 등이다.

2중 공연장은 객석 정원 260명,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은 50명으로 제한되며 전화예약.문의 062-670-79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the
구입문의 1588-8529